

아무도 몰랐던 **물레발** 명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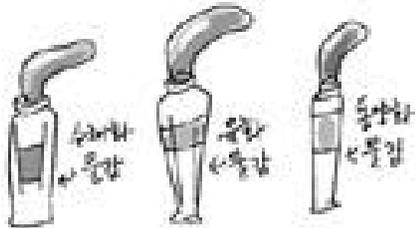
물레는 컴퓨터의 발명으로 그림그리는 작업조차 컴퓨터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예전만해도 그림을 그리고 채색할 경우 직접 물감을 주어서 도화지에 칠을 했었다.



이런들 예전에는 물감이라는 채색용품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럼이면 이 물감을 누가 의뢰 어떻게 응징하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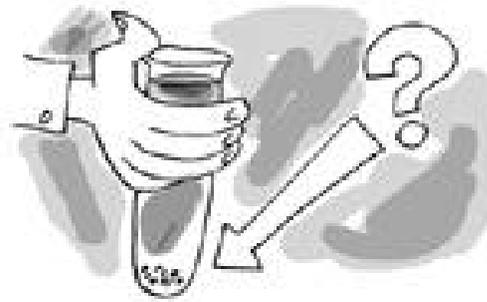


당시 페리신은 호프만의 실험을 돕고 있었다.

말라리아의 치료약으로 쓰이던 기니대를 합성해보려



아마 황산아닐린과 증류물산염을 섞었는데 검은 침전물이 생겼다.



퍼킨은 알콜에 이 칩전물을 넣고
열을 가열하였더니 증류후에 아수
교를 받침이 생겨났다.



퍼킨은 시험관이 흰색을 아래에
담았는데, 곧 흰색은 자중비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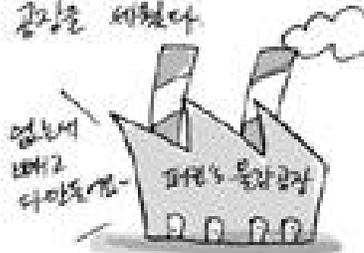
그는 물이 든 천을 빨아내기도 하고
햇빛에도 넣어보았지만 색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다.



퍼킨은 그때부터 머릿속에
온통 물감에 관한 생각들로
가득찼다. 그리고 그는 결국
물감공장을 차렸다.



1857년 6월 퍼킨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형은 힘을 모아 영국으로가
그린우드 근처에 세계 최초의 합성물감
공장을 세웠다.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퍼킨은
결국 그린우드 공장이 '모네인'이란
물감을 탄생시켰다.

